

KISTEP 통계 브리프 2006-16호

주요 기술분야별 특허성과 II

(컴퓨터, 통신, LCD 분야)



kiste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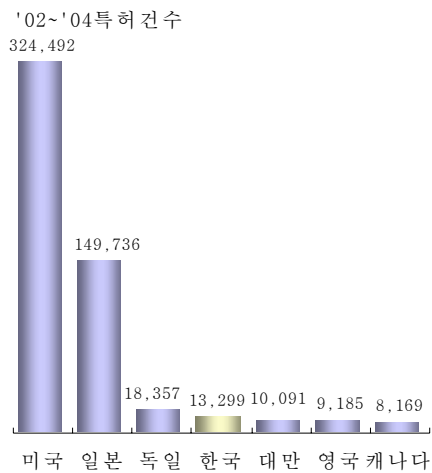
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Korea Institute of S&T Evaluation and Planning

□ 컴퓨터분야 특허활동 및 경쟁력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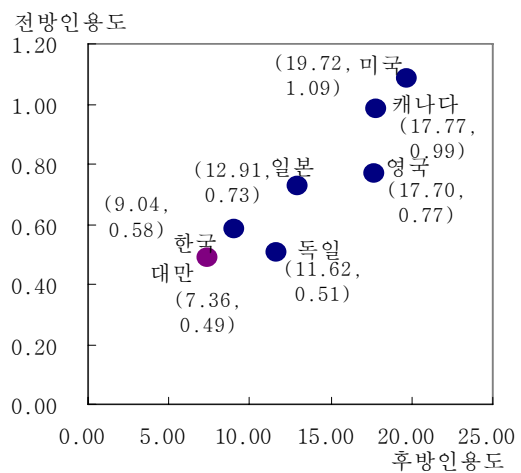
○ IT분야 기술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T 특허 건수는 13,299건으로 미국의 4.1%, 일본의 8.9% 수준임.

- 인용도는 미국, 캐나다, 영국의 전후방인용도가 높은 편이며, 한국, 대만, 독일이 낮은 편에 속함.
- 과학적 연계성은 대만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 및 특허 확보활동이 미흡
- 기술순환주기는 5.01년으로 비교국가보다 약 1년 정도 기술진보속도가 빠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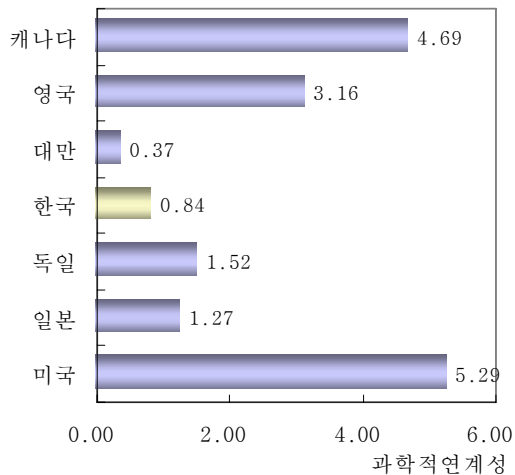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특허건수('02~'0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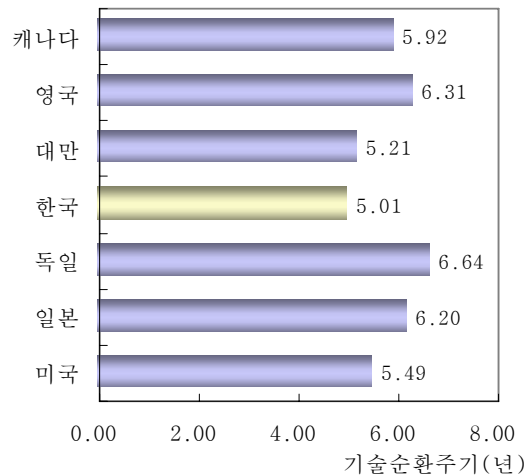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인용도



<그림 3> 평균 특허당 과학적 연계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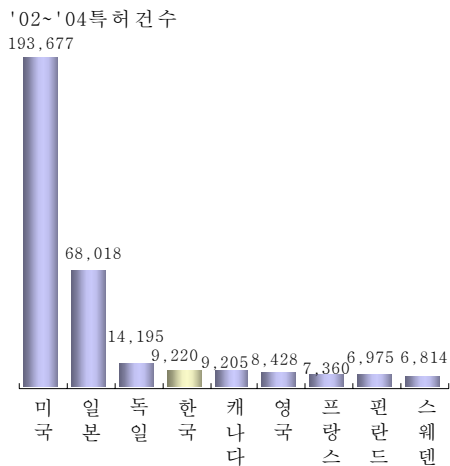
<그림 4> 기술순환주기(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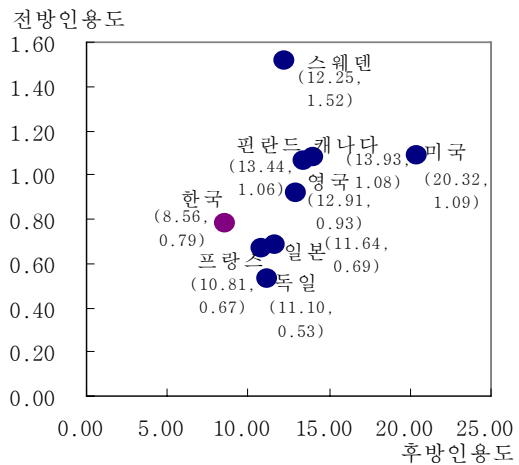
□ 통신분야 특허활동 및 경쟁력 비교

- 통신분야의 특허건수는 9,220건으로 미국의 1/20, 일본의 1/7 수준임.
- 우리나라의 후방인용도는 8.56, 전방인용도는 0.79로 낮은 수준이며, 이는 통신 분야의 특허가 선행기술이 다수 존재하는 분야의 기술이 아니며, 비교국가에 비해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.
- 하지만, 기술순환주기는 4.96년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비교국가에 비해 크게 빠른 편이고, 과학적 연계성도 비특허문헌을 2.16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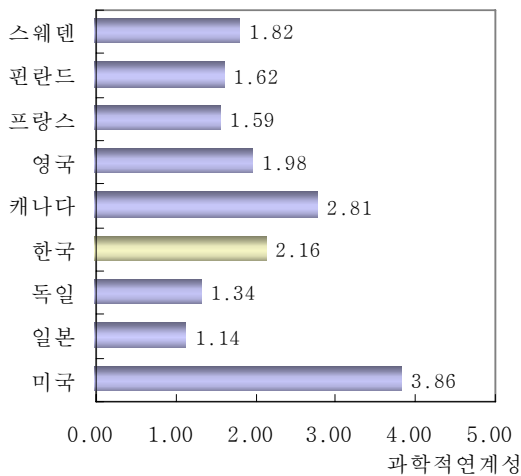
<그림 5> 특허건수('02~'0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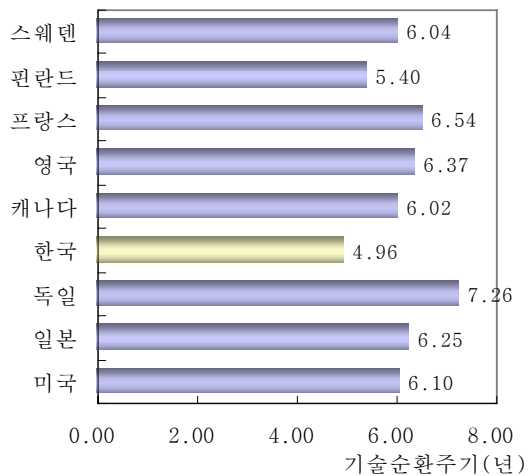
<그림 6> 인용도



<그림 7> 평균 특허당 과학적 연계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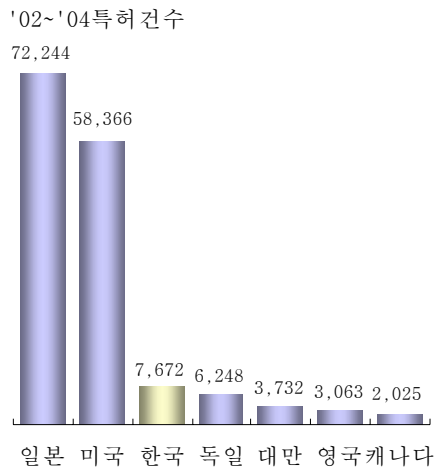
<그림 8> 기술순환주기(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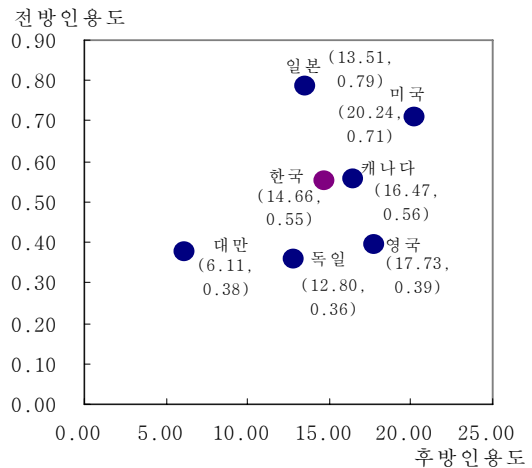
□ LCD분야 특허활동 및 경쟁력 비교

-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LCD분야 특허건수가 7,672건으로 1위 국가인 일본의 1/10 수준임.
- 후방인용도는 미국이 20건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후방인용도는 일본이 약 0.8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.
 - 미국은 특허출원시 선행기술의 인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, 이는 특허정보활용 및 선행기술의 조사가 활발함을 의미함.
 - 우리나라는 후방인용도가 약 14건, 전방인용도가 0.5건으로 나타남.
- 기술순환주기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약 5.2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나며 캐나다, 영국, 독일은 약 8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.
 - 우리나라는 컴퓨터 및 통신분야와 함께 LCD분야에서도 기술순환주기가 매우 짧게 나타남으로써 각 분야의 기술개발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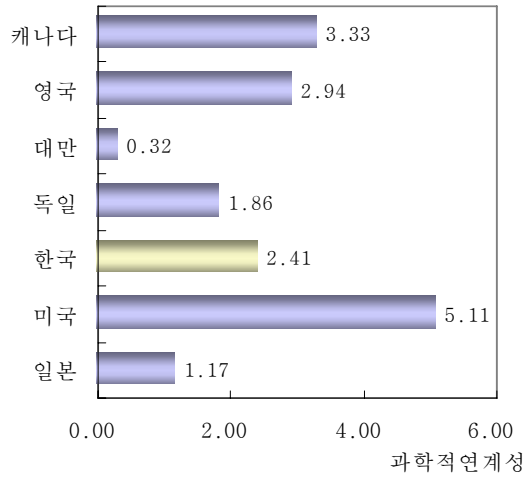
<그림 9> 특허건수('02~'0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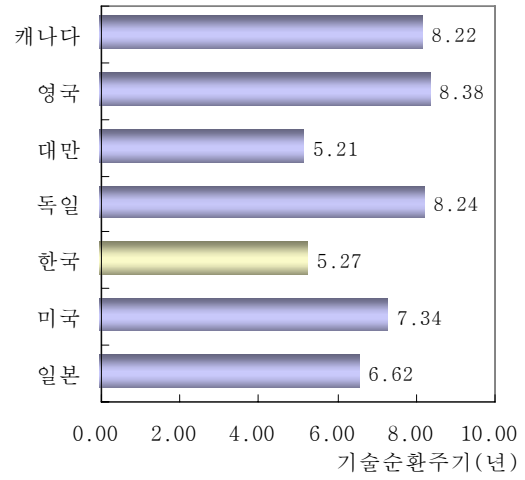
<그림 10> 인용도



<그림 11> 평균 특허당 과학적 연계성



<그림 12> 기술순환주기(년)



* 자료원 : 200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

* 자료관련 문의: 기술혁신지표팀 (02-589-2829)